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9: 마가복음 소개

Ted Hildebrandt 박사의 글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수업에서 테드 힐드브란트 박사입니다. 강의 번호 9. 마태 복음을 마무리하고 마가의 인물에 대한 서론을 시작합니다.

A. 마태복음 리뷰 [00:00-3:46]

A: AC **결합**; 00:00-12:00; **마태복음은 히브리어 1부**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이며, 오늘은 마태복음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체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의 상호 텍스트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이 흘뜨린 것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은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행적을 확장하는 반면, 마태복음은 예수의 말씀을 확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야고보와 마태복음을 약간 비교했는데, 마태복음은 체계적이고 야고보는 마태복음과 상호 텍스트적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직과 제자도,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묘사된 의로움, 순종, 참 제자와 거짓 제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학, 그의 신성, 그의 인간성, 마태복음에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강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고, 따라서 그는 구약에 대한 언급을 40회 이상 언급했습니다. 구약을 성취하는 모든 유형의 맥락이 있지만, 성취는 모든 종류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성취에서 성경을 통해 올려 퍼지고 마태오 책을 통해 올려 퍼지는 메아리까지. 예고, 예시, 구약이 성취된 다양한 방법.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의 다섯 가지 주요 담론이 될 것입니다. 산상 설교, 열두 제자의 파견, 왕국의 비유, 18장의 교회 담론, 24장과 25장의 올리브 산 담론.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올리브 산 담론과 다가올 왕국, 그리고 “이미 그러나 아직”, “여기 있지만 저기”, 미래에 다가올 왕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히브리어적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을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표는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많은 책에서, 제 일반적인 방법론은 저자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

신약 성경 학자들이 저자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마가복음에 들어갈 때 저자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독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자와 독자. 저자와 독자 사이에 어떤 종류의 문제, 어떤 종류의 것들이 이 복음서나 이 서신을 쓰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히브리어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왜 히브리어적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비유대적 측면이 있는 듯하고, 그것이 실제로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도 다루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의 위대한 주제, 시작과 끝, 전 세계로 나아가는 증인. 마지막으로 스타일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스타일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과장법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B. 마태복음의 히브리성 - 언어 [3:46-7:40]

우리는 마태복음의 히브리적 배경 또는 히브리 청중, 유대인 청중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는 게마트리아 원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에서 기원전 1000년경의 다윗,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의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원전 1000

년, 아브라함의 아들, 기원전 2000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다윗과 아브라함 모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위대한 다윗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과 그의 후손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그가 그에게 왕조를 세우고 다윗의 후손 중 한
 명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사무엘하 7장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위대한 아브라함 언약, 땅, 씨, 그리고 그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은 핵심 인물입니다. 그것이 책이 시작하는 방식이며,
 둘 다 주요 유대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게마트리아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기원전 586년 바빌론 유배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유배와
 예수의 탄생 사이에는 14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살펴보면, 1장 8절을 보면 마태가 실제로 유다의 세 왕을 건너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유다의 왕들의 목록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따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들의 완전한 목록을

얻었고, 우리는 세 개의 이름을 건너뛴 것을 압니다. 역대기 상권으로 가면 역대기의 평행 구절을 마태복음 1:8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작동시키고 14개에 맞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고대에 그들이 숫자 체계로 알파벳을 사용했지만 영어에서는 별도의 알파벳과 별도의 숫자 체계(1, 2, 3 그리고 우리는 a, b, c라는 두 가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알파벳을 사용했기 때문에 A는 1, B는 2, C는 3, D는 4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 숫자 14가 DVD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D는 숫자 4, V는 숫자 6, D는 숫자 4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DVD는 숫자 14가 됩니다. 따라서 숫자와 문자를 다루는 이 게메트리아 원리를 통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유배까지 14대, 유배 에서 예수까지 14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원리를 적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면 DVD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DVD는 유대인이 모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음만 있으므로 DVD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는 "eloi, eloi, lama sabachathanai"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아람어로

썼습니다. 그는 “behold”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단어 *hineh* 입니다 .

C. 히브리성 - 예언 성취와 독점적인 유대인 메시지

[오전 7시 40분~오전 12시]

그는 또한 예언 성취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태가 구약을 인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파르테노스 에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 마리아는 동정녀이고 요셉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 7장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7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예수와 동정녀가 잉태하는 일 사이에 이러한 연결이 생깁니다. 미가와 베들레헴 사이의 이러한 연결은 그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는데, 아마도 베들레헴에 친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우리는 그것이 호세아서 11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약간 달랐습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예수를 얻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서가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것, “나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내려가고 돌아올 때, 그 참조 사항들은 또한 예수를 이스라엘과 연결합니다. 예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예수는 새로운 모세이며, 다섯 가지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을 사용한 것은 그것이 매우 유대적인 연결된 책이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17에서 예수는 “나는 선지자들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절정, 선지자들의 율법의 운명의 성취로 얻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유대성과 유대 선교의 배타성 측면에서 흥미로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 그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씀하신 것이고, 오직 마태복음만이 이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 가운데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니, 지금은 온 세상에 나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만 엄격히 가라.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권리를 얻습니다. 복음 메시지가 먼저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체로 거부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거부당한 후에 복음이 사마리아인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흥미롭고 배타적인 진술이며, 그가 열두 제자를 보낼 때 유대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또 다른 사례는 시리아-페니키아 여인, 즉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와서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지역인 시리아-페니키아에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음식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먹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음, 개들도 상 아래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 이스라엘에서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거라, 네 아이가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주저함을 나타내시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열두 제자를 보낸 일 모두에서 이런 종류의 유대인적 진술이 나오는데, 이는 유대인 청중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D. 유대인 관습과 사상의 히브리성 [12:00-16:25]

B: DF **결합**; 12:00-22:28; **마태복음 히브리어 2부**

이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유대인 관습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2의 비유와 비교한 마태복음 15:2. 마태복음 7:3과 비교한 마태복음 15:2. 먼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얼마나 짧고 간결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요.’” 토론 끝.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의 비판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 손을 씻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요? 그들은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끝. 토론 끝.

반면에 마가는 로마 청중을 대상으로 썼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이 더러운 것,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NIV의 괄호 안에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은 장터에서 들어올 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않고, 잔, 주전자, 술을 씻는 것과 같은 다른 많은 전통을 지킵니다.”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장터에 나갈 때 전통적으로 손을 씻는다는 긴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 주전자, 주전자, 잔을 씻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 청중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여기에서 붙잡고 있다는 이 전통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상호작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가가 로마 청중에게 한 부수적인 코멘트는 예수와 바리새인들 간의 상호작용보다 훨씬 더 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관습이 마가에서는 설명되지만 마태에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를 사용하는 데 신성모독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

이제, 꽤 흥미로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43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들은 바가 있으나,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43에서 예수님은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무엇에서 나왔을지 밝혀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일반적인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됩니다. 사해 두루마리에는 “네 원수를 미워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두루마리에는 “네 원수를 미워하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인용한 것은 구약성경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에서 널리 퍼졌던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해 두루마리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기록이 있으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매우 매우 유대인으로 보여지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구약성서 인용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는 사해 두루마리에 기록된 당시 유행했던 것들을 인용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그가 사해 두루마리와 그 인용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해 두루마리가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더 광범위한 문화적 현상을 반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유대인적 관점을 반영할 것입니다.

마. 히브리성-사두개인들의 지식 [16:25-18:50]

같은 종류의 일이지만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 사두개인들과의 거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의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고, 천사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집단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유대교에서 훨씬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엄격한 유대인으로 여겨졌지만, 사두개인들은 부유하고 헬레니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문화에 적응했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헬레니즘과 통합하는 데 있어 보다 자유로운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를 피어냈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이 여자가 있었고, 그녀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었고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글썄요, 레위라테 결혼이 오면, 두 번째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의 씨를 키워야 합니다. 글썄요, 그 형제가 그녀와 결혼했지만 그들은 자녀가 없었고 그도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형제가 모두 이 여자와 결혼해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다시 말해, 부활 때 그녀는 일곱 남자와 결혼했는데,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여자가 일곱 남자를 두는 일부다처제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온갖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훌륭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느니라. 부활할 때에 천사와 같을 것임이요.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리로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부인한 것을 사용하여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너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구나. 너희 문제를 그냥 그렇게 해결해 줄 천사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사에 대한 그들의 이해 부족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되돌려 놓고, 그것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집안 싸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돌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유대인의 맥락,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갈등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F. 히브리성- 천국과 유대인들의 소문 [18:50-22:28]

이제 다음으로, 하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많은 평행 구절에 “하늘 왕국”이 있다고 말했고,
 마가복음과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 왕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12번 사용되었지만, 6번은
 마태복음에서만 고유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듯하고,
 그가 사용한 12번 중 6번은 마태복음에서만 고유합니다. 이는 다시
 한번 유대인적 성향을 보여주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이스라엘을 넣지 않은 반면,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적 성향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11-15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접하는 것은 유대인의
 소문입니다. 마태는 이 유대인의 소문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부활 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들이 가는 동안에 경비병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만나
 계락을 짜니,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이 보고가 총독에게
 전해지면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 ’ 이 보고가 총독에게 전해지면
 우리가 그를 만족시켜서 당신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군인들은 돈을 받고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이제 마태는 아마도 서기
 60년 이후에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가 죽고 부활한 지
 약 30년 후이며, 그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유대인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소문은 경비병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말하도록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 공동체 내부의 유대인 소문,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 그래서
 마태는 그 소문을 잠재우고 “이봐, 이게 일어난 이야기야.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런 말을 한 거야.”라고 말합니다.

이제, 랍비 전통에서 예수가 마법사였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는 마법사, 일종의 마술사로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12:24f에서도 예수가 귀신의 왕자 베엘제붓을 통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마법사라는 생각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마법사라는 유대인의 비판을 일부 단축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예수는 “내가 베엘제붓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면 베엘제붓은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것이므로 말이 안 된다”는 말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러면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유대적 개념을 다루면서 마태복음은 유대교에 매우 기울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유대교 종파로서의 기독교 [22:28-26:53]

C: GJ를 결합합니다. 22:28-34:43; 유대교 종파로서의 기독교,

매튜의 외국인들

이 책은 유대인의 소문과 다양한 방식으로 유대인의 표현 수단을 다루지만,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분리하는 정말 강력한 광범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이었고,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그곳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오순절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은 그곳의 성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유대인적인 것이고, 초기 교회는 실제로 나사렛인이라는 종파로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지금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에는 유대교 내의 종파였고, 그런 다음 일어난 일은 박해가 왔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분리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유대교에서 분리되었을까요? 그들은 살해당했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고 (행 7장), 바울도 그 중 일부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중대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열두 사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매우 유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강제로 쫓겨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이 생깁니다. “예,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이 생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왔을까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긴장이 되고, 초기 교회에서 박해가 온 이유는 한때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인으로부터 특별한 면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허용되었고, 유대인들은 한 분의 신을 섬기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인으로부터 휴식을 취했고 그렇게 심하게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보호막 아래 있는 한, 그런 식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일종의 별개의 단위가 되었을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고 박해받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무신론자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그들의 동상과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비난받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중 한 명은 자신을 태워 죽일 불에 타 죽어가고 있었는데, 무신론자로 비난받았고, 폴리카르포스는 “무신론자들을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신이 아닌 것들을 믿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비난받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식인종이었기 때문에

비난받았습니다. 그들은 식인 풍습 때문에 비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성찬례와 주님의 만찬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와, 그들은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인종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형제 자매와 결혼했기 때문에 근친상간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그룹 내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 자매와 결혼했지만 그들이 영적인 형제 자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그들과 육체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친상간, 식인 풍습, 무신론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큰 일이고 제 절친한 친구인 데이브 매튜슨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강의에서 아주 잘 언급하는 것은 황제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다양한 측면, 즉 지역 사람들이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려고 기독교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통해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교에서 벗어나 이방인으로 옮겨가는 확장입니다.

I. 그리스도의 족보 속의 외국인들-다말과 라합[26:53-31:27]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을 그 족보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족보에 대해 이야기하면 모두가 잠이 든다는 것을 압니다. “이건 정말 지루해, 우리는 족보를 하지 않아. 족보를 하려면 적어도 70살이 되어야 해.” 하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들 열두 지파를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 열두 지파가 유다로 내려왔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은 유다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요셉까지 내려오는 목록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의 왕좌에 앉을 수 있도록 예수의 법적 가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매우, 매우, 매우 유대인인 것을 나열하는 반면, 여기에 언급된 네 명의 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네 명의 여성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입니다. 유다가 다말이라는 여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다말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말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것은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말에 대해 말하고 있고, 여기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과 결혼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이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엘이 죽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오난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두었고, 그는 다른 아들을 그녀에게 줍니다. 그는 정자를 흘렸고(저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난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와 결혼한 유다의 큰 아들이 죽었고, 그의 둘째 아들은 레위라테 결혼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이제 그는 막내 아들을 두었고, 세상에서 그가 막내 아들을 이 여자에게 줄 리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만지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아내가 죽고, 이제 유다는 아내가 없게 되었고, 그는 양털을 깎으러 나갑니다. 그는 나가서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다말은 막내 아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창녀로 분장하고, 유다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그의 반지를 얻습니다. 그녀는 그가 염소를 데려올 때까지 임시로 지불할 반지를 원합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그녀를 돌로 쳐 죽이고

싫어하고, 그녀는 그의 반지를 꺼내며 “이봐, 유다, 이거 기억나? 여기 네 비자 번호가 있어, 끝났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말이 무엇인가입니다 . 다말은 창녀 역할을 한 가나안 여자입니다.

라합이라고 말하자마자 무엇이 떠오르나요? 글썄요, 라합이 뭐예요? 라합은 창녀, 창녀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러 갈 때 알던 가나안 창녀였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을 건너 여리고와 싸우러 갔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은 창녀 라합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창녀였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 여리고 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 메시아 계통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그녀는 다말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은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 글썄요, 둘 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름답고 순수한 유대인 족보가 있고, 거기에 네 명의 여성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두 사람은 전혀 유대인이 아닙니다 . 그들은 유대인 여성이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의 족보 속의 외국인들-우리아의 아내와 롯[31:27-34:43]

이제, 제게 매우 흥미로운 점은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언급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솔로몬은 밋세바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모두가 다윗과 밋세바를 알고 있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마태의 족보에서 그는 밋세바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밋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밋세바는 맹세의 딸입니다. 좋은 유대인 이름, 좋은 유대인 여성. 그녀는 다윗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대체로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족보를 작성할 때, 그는 밋세바를 언급하지 않고,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NLT 번역에 문제가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NLT는 밋세바라는 이름을 주는데, 대체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가 밋세바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우리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는 죽은 남편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를 훔치기 위해 이 남자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는 뭐였을까요? 우리아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세요, 마태는 밋세바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고 모두가 밋세바를 알았을 텐데도 밋세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아를 언급했는데,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 헷 사람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족보에 있는 이 외국적 연관성이 있고, 이것은 실제로 다윗이 밋세바와 관계를 맺고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우리아의 아내, 헛 사람 우리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마지막 네 번째 여자는 룻입니다. 룻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 보아스 에 대한 아름다운 책 중 하나인 책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는 엘리멜렉과 그들이 모압으로 가서 모든 남자들이 죽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들은 다윗의 증조부모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는 모두 비유대인, 이방인, 외부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족보에서 언급된 네 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언급된 여성은 네 명뿐이며 , 그들 모두는 이러한 외국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불

수 있듯이, 이런 종류의 엄격한 유대교에서 모든 민족으로의 이동은 일종의 초기적 방식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합니다.

K. 확장성 - 우주적 사명과 동방박사들 [34:43-42:55]

D: KL을 합치다; 34:43-47:05; 마태복음의 광범위함

책의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유대교가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진술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대명령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고 경배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였습니다.” 요한이 의심하는 도마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하는 도마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는 이 아이디어 (이것이 제자도 주제를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보시나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방인 여성들과 함께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의 시작과 끝에 있고, 사실,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에서만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마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고, 누가도, 요한도 기록하지 않았고, 오직 마태만이 동방박사들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복음이 유대교를 넘어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 같고, 여기서 첫 번째 사람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은 첫 번째 사람들. 이야기가 예수의 머리 위에 있는 이 표지판, 유대인의 왕으로 끝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이야기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누가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들어오는 이방인들,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동방박사들, 마술사들, 또는 점성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탈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거부한 것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13장은 왕국의 비유입니다. 8장과 9장에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 중 하나는 백부장인 사람입니다. 그는 백부장을 거느린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이 사람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지위에 있지만 하인을
 걱정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제 하인을 고쳐 주시겠습니까? 제
 하인은 마비가 되어 있고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좋아요, 제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백부장의 집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이 모든 하인들과 함께 이 큰 백부장을 집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골
 유대인입니다. “저는 시골 유대인이시여,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제 하인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저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저 말씀하세요, 당신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했습니다. “와, 저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런 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로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열성적인 사람이 되어 “아니, 우리는 로마인을 없애야 해, 나는 유대인의 왕이고, 나는 다윗의 아들이며, 나는 왕좌에 앉을 거야”라고 말하는 메시아이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 “여기에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범인 로마 백부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한번 엄격한 유대인적인 행동 방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유명한 인용문이 있습니다 .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해진 그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더라면.” 티로와 시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티로와 시돈은 레바논에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곳은 갈릴리 해안을 따라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고, 전적으로 유대인이며, 그는 “만약 너희에게 행해진 그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더라면, 그들은 오래 전에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티로와 시돈을 칭찬하고, 믿음의 부족과 그가 받은 거절과, 이 두 유대인 도시인 고라신과 벳새다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악한 소작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 비유를 다룰 때, 저는 이전에 비유를 배웠을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어떤 것은 길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바위가 많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와 잡초 사이에 떨어져 익사하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수확을 냅니다. 저는 비유는 항상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정상적인 것이며, 비유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때때로 비유 이야기가 다소 비현실적인 것들이고, 때로는 요점을 제시하기 위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소작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땅을 얻었고, 그가 하는 일은 농부가 나가서 이 소작인들에게 땅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들은 그의 땅을 경작하고, 그런 다음 거래는 그가 그들에게 땅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들이 작물을 생산하고, 그들은 그에게 그 중 일부를 주고, 그는 그 중 일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소작인들이 그것을 하고, 그는 소작농들로부터 임대료를 받기 위해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은 그의 하인들을 잡아서 몇몇을 때리고, 그는 더 많은 하인들을 보내고,

그들은 실제로 그가 이 농부들에게 보내는 그의 하인들 중 몇몇을 때리고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이 내 아들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소작인들에게 하인을 보내고 그들이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결국 당신의 하인들을 때리고 그들 중 일부를 죽였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직접 가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의 아들을 보내고, 당신은 여기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보내고,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고 말합니다. "와, 이게 아들이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우리가 상속 재산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2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을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인에게 주지 않은

소작농들에게서 빼앗기겠지만,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을 백성, 즉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유대인들이 첫 번째 제의를 받았다는 개념이고, 그들은 그것을 오용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소작농의 비유입니다. 내레이터는 바리새인들이 그가 자신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에서 단서를 얻었습니다.

ㄴ. 열두 보좌와 증거 [42:55-47:05]

이제, 이 광범위한 것과 함께 작동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제자들에게 그들이 열두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28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이제 인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다음 프레젠테이션에서 마가복음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스스로 정의하십니다. “인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족장이 아니고, 유다와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스불론이 아닌 이런 종류의 융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들이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열두 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얻은 것은 두 공동체, 즉 유대인 공동체와 제자들이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는 공동체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 증인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적 지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벗어나 이방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고방식으로 발전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증인에 대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온 첫 번째 사람들은 2장에서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되도록 열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며, 열두 제자를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한 애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올리브 산을 넘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다 프로그램을 보고 그 Dominus Flevit 교회에 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올리브 산에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산과 키드론 계곡을 내려와 반대편으로 올라가면 성전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산이 여기

있고, 올리브산이 여기 있고, 산을 내려오면 눈물처럼 생긴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애통해 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모으고자 하였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는 며칠 후면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예루살렘을 위한 애가입니다. 다시 한번, 증인들이 나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는 올리브산 담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끝이 올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끝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지표입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와이클리프 성경 번역자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지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면에서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대명령이 있습니다. 대명령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암기해야 할 구절입니다. 제가 함께 일하던 한 사람은 대명령이 그의 주제가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보고 항상 이 대명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매우 전도적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온갖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임마누엘 개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책은 이 증인들로 시작합니다. 중간 10장에서 그는 열두 제자를 이스라엘로 보내고, 그런 다음 그들을 모든 민족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 증인입니다.

M. 매튜의 이야기-스타일 [47:05-49:41]

E: MN을 결합하다; 47:05-53:25; 해석학: 과장법

저는 마태복음의 스타일 중 일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글쓰기 스타일이고, 저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반복을 좋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는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약 31번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리고 “너희는 옛날에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은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여러 번 읽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런 종류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형태를 사용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복이 있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은 복이 있도다. 모두 한 줄로 줄을 서서 히브리어 단어 *ashre* , 그리스어 단어 *makarios* 로 시작합니다 .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많은 히브리 시가 병렬 구조로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하늘과 땅”, “율법과 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반복을 사용할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병렬 구조를 볼 수 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는 같은 것을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에 시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병렬 구조의 아이디어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다섯 가지 위대한 담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섯 가지 담론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경 또는 토라와 비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다섯 권입니다. 따라서 다섯 가지 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상 설교, 올리브 산 담론, 열두 제자의 파견, 왕국의 비유

,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그것은 모두 마태의 스타일의 일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40개 이상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마태의 스타일의 일부이고 우리는 아마도 유대인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휘 면에서 그는 "then", "behold", "the kingdom of heaven"을 꽤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마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N. 해석 - 과장법의 해석학 [49:41-53:25]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과장법을 사용하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과장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과장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된 진술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같은 기관에서 가르쳤는데, 그들은 항상 성경에서 "모든"은 항상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그것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가 항상 한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어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단어가 항상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이

항상 “모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글쎄요, 가족 내에서 형제 자매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처럼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개념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과장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할까요? 마태복음 3:5에 “온 예루살렘이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거기에 “온”이라고 나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다는 뜻인가요? 세례 요한은 20~30마일을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다”는 것이 정말 그런 일이었나요?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곳에 가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한 사람은 38년 동안 불구가 되어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봐요, 제가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없어요”라고 말할 것이고, 예수께서는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 사람은 일어나서 성전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38년 동안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내려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농구 경기장에 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모두, 모든 고든 칼리지가 농구 경기장에 있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과장된 표현이고, 과장된 표현입니다.

과장법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법은 강조를 위한 과장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진부한 농담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는 과장법을 항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과장법 자체도 과장법입니다. 그러니 과장법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과장법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측면에서만은 아닙니다. 이제 과장법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할 때,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라고 말할 때, 그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장된 의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입니다. 맥락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맥락에서 단어를 떼어내어 의미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맥락에서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은 때때로 의심할 여지 없이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경우에는 “온 유대가 세례자 요한에게로 내려갔다”는 과장된 표현이며 강조를 위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0. 성경을 보편화하지 말라-눈을 뽑아내라 [53:25-56:38]

F: OS 결합; 53:25-70:56; 진술을 보편화하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인용해서 산상수훈의 진술을 절대화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들은 “와,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구나”라고 말하고 나서 그 진술을 성경에서 절대화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고 나머지 성경은 모두 보류하고 배경으로 밀어내고 이 진술 하나만 절대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부당한 방법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성경의 다른 구절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문맥에서 한 구절만 떼어내서 그것을 성경 전체의 주제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29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29를 읽어보면 다들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정욕을 품는 자는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 눈이 네게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 던져 버리라. 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네 눈이 네게 죄를 짓게 하고, 네가 여자를 보고 정욕을 품게 하거든 눈을 빼어 버리라. 나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눈이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절대적인 진술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네 오른손이 네게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 던져 버리라. 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 버리라. 네 손이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 버리라. 그러면 네 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머리와 네 마음이 너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어떻게 네 마음을 잘라 버리고, 네 머리를 잘라 버리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과장된 진술이며, 강조를 위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는 우리의 눈을 뽑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을 뽑아내면 머리가 여전히 정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욕은 눈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눈을 뽑아내다”라는 말로 이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 과장된 진술이며, 강조를 위한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눈을 뽑아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가져다가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산상 수훈에서 한 진술을 꺼내 모든 진술을 보편화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눈이 거슬릴 때 눈을 뽑아내는 것을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P. 성경을 보편화하지 말라 - 분노와 어리석은 자들 [56:38-59:49]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가 난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형제에게 화가 난 자는 누구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카인과 아벨의 살인의 배후에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분노는 나쁩니다. 예수님은 분노가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썄요, 예수님은 정말 분노가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진술을 보편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분노가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 그는 이유 없는 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조금 한정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편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3:5에서 발견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있고 이 사람은 손이 말라 있습니다. 손이 말라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사람의 손을 고쳐 줄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른 손을 가진 이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 예수께서 그들을 노하여 바라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가 안식일을 어길지 말지를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그 양을 들어올릴 것이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낫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지만, "노하여 바라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노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진술을 보편화하는 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바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작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바보가 아니라, 저런 종류의 바보입니다.” 그리고 말로 장난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바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과 어리석은 너희들 아, 믿기가 더디하구나 .”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그는 바보라고 말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 온갖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 마법의 단어,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없는 이 한 단어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마법의 공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말하는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여”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그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고 다른 유형의 용어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맥락에서 진술을 꺼내 보편화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Q. 성경을 보편화함 - 다른 사람을 판단함 [59:49-62:38]

이 구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맹세컨대, 30년 전에 그리스도인에게 사람들이 아는 성경의 주요 구절이 무엇인지 물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이 핵심 구절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팀 티보조차도 지금은 그것을 눈여겨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무엇이냐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음,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합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떨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신 7:15는 어떨까요? 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그저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 교사들이 있고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분명히 모든 시대의 마지막에 큰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진술을 받아들이고 그 진술을 보편화하는 데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참된 교사와 거짓된 교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서 “위선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판단을 내리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고, 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이 진술을 받아들여 보편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7장 6절에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산상수훈에 있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돼지이고 누가 돼지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는 데 조심해야 하고, 뇌를 꼬고 “이게 제 주제가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판단받지 않으려면”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누군가가 그들의 허세를 폭로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판단하지 마라. 나를 판단해서는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도우려고 하며,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형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글썄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남자를 기억하세요. 그는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남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는 판단을 내렸으니, 이제 그를 교회에서 내쫓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을 절대화하는 것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 성경을 보편화함-다른 뺨을 돌려라 [62:38-66:08]

이제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39에 나오는 “누군가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저항하지 마십시오. 글썄요,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저는 악한 사람에게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면 마태복음 5:39의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것은 평화주의적인 사람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다른 빵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화주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누군가가 악에 맞서야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빵을 돌려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열 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빵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를 데려가서 다른 빵을 돌리고 아들은 그의 얼굴의 다른 쪽을 때립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은 그 아이에게 방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 다른 빵을 돌려. 가서 엄마 얼굴을 때려,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가서 엄마 얼굴을 때릴 거야. 그래서 당신은 방금 이 아이에게 누군가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질문: 그것이 당신이 자녀를 키우고 싶은 방식입니까? 당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배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때리면,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서는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얼굴을 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저에게 고전적인 이야기는 디트리히 본회퍼입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비용과 그가 쓴 훌륭한 책,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에 관해
이전에 그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다른 뺨을 돌리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그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환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그 환경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그 환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히틀러의 규모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악에 직면했을 때, 심지어 “이론적 평화주의자”
였던 디트리히 본회퍼조차도 그런 종류의 악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험과 대가를 치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진술을 절대화하는 데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적절한 맥락이 있는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제 아내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저는 다른 뺨을 돌리고, 그러면 그들이 고통을 받는데, 제가

그것에 맞설 만큼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답게”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한 집안의 아버지이고, 제 안에 아주 깊은 곳에는 제 아이들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뺨을 돌리는 것은, 예 , 어떤 맥락에서는 제 뺨을 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제가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진술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S. 다른 뺨을 이해하다 [66:08-70:56]

올해 제 TA도 다른 뺨을 이해하는 면에서 훌륭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것은 정말 흥미로운데, 다른 뺨을 돌리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의적인 증인의 맥락에서 나옵니다 . 다시 말해, 법정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증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증인이 무엇을 하든 그에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짓 증인은 다른 사람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에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오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때리면”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오른쪽 뺨을 때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들은 어느 뺨을 때릴까요? 그들은 왼쪽 뺨을 때릴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그 사람이 손등을 사용할까요? 그들은 손등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굴욕과 수치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우리의 명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애가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애가 3:30에서 뺨을 때리는 것이 수치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 우리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가족을 방어하지 말라, 나라를 방어하지 말라, 방어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편화하는 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때가 올까요?

전도서 3장, 유명한 구절, 버즈는 그들의 노래 “돌아, 돌아, 돌아”에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평화의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것이 있어야 할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보편화합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사입니다. “평화의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온유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가 선두를 달리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전쟁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진술을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진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진술을 사용해야 할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 얼굴을 때릴 때(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뺨을 돌려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와 장소가 필요합니다. 약해서가 아니고 비겁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힘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악의 수준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디트리히 본회퍼처럼 독일로 돌아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처럼요. 그는 악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장소가 있고, 사람이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복잡한 일이죠. 한 구절만 가져다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해석학이라는 것입니다. 해석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해석학은 성경 해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산상 수훈에서 “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뽑아버려라”는 진술을 “글쎄, 내 눈을 뽑아버려야겠다”고 말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된 진술이고, 강조를 위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런 진술을 받아들여 보편화하는 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 맥락에서 벗어나 해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을 뽑아버려라” 또는 “다른 뺨을 돌려라” 또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를 보편화하거나 절대화하는 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의 의미와 뉘앙스를 탐구해야 하고, 그것들을 언제 적용해야 하고 언제 적용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그것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0:56-74:45]

I. 마가복음 서론---예수님은 주님의 놀라운 종

G: TV 결합; 70:56-80:57; Mark: 소개 및 저자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먼저 마가의 성격을 소개하고 사람으로서의 마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천국이신 것처럼 마가는 주님의 놀라운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종이라는 주제가 커질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꽤 멋진데, 놀라운 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2:22 이하에서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가 율법 교사가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27절까지 “사람들이 매우 놀랐고 서로 ‘이 새 가르침이 무엇이냐? 권위 있게 악령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순종하느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인이네요.

제게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다시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6장 6절에 “그분은 거기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놀라운 종으로 보지만, 그분 자신은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의 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자의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태는 제자였고, 그는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 또는 레위는 그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마태 또는 레위는 세리였고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전혀 세리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우선 그는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을 당시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영감을 받았으므로 그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글쎄요, 그 사람은 영감을 받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의 저자에 대해 실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실 저자의 이름은 이 책에 없으므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쓴 것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에 따라 그들이 쓴 것에 대해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배경을 알고, *제자도의 비용이라는 책을 읽었다면*,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된 후 독일로 돌아가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 그가 한 일을 했고, 그런 다음 그의 신앙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디트리히 본회퍼에 대해 알게 되고, *제/자도의 비용을 읽었다면*,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삶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작가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이를 만듭니다. 작가는 자신이 쓴 글에서 어떤 종류의 개인적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쓴 책 속의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요?

U. **저자-요한 마가는 누구였는가?**[74:45-77:07]

영어: 이제, 그의 이름은 존 마크였습니다. 그의 실제 히브리어 이름은 존이고, 그의 그리스어 이름은 마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12는 이 이름이 존 마크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다른 이름... 시몬 베드로: 시몬은 그의 유대인 이름이었고, 베드로(이 바위 위에)는 그의 그리스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도 이런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그리스어이고 하나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고, 제가 가르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권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 수업에 와서 자신을 베드로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채택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문화권 간에 두 가지 이름으로 그런 종류의 일이 일어납니다. 두 문화권의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이중 이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사도행전 12:12를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모였을까요? “그들은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제 마가의 집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였다면, 큰 집인가요, 작은 집인가요? 작은 집이라면, 그들은 그곳에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큰 집 출신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곳의 부동산은 비싸고, 그는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가 어머니였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오고, 여기에 또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요한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그들은 문에 그의 유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요한 마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교회의 중심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에서 사도행전 12:12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V. 마가가 복음서에 자신을 기록함 [77:07-80:57]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자신을 책에 넣었다고 제안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저자에게서는 발견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젊은이에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의 맥락에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 “야,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고, 유월절을 지낼 거야. 그러니 저녁을 먹을 장소와 유월절을 준비해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도시로 들어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항아리를 메고 있는 사람이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간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제 객실(객실을 주목하세요)이 어디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이제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열두 제자와 자신, 즉 열셋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구가 비치되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물항아리를 나르는 이 남자가 요한 마가라고 제안합니다. “그의 집으로 가서”... 다락방이 있고, 크고 가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열세 명입니다. 알다시피, 열세 명과 그들의 가족,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스무 명에서 서른 명까지요? 스무 명에서 서른 명까지 말했는데,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런 모든 일을 하려면 꽤 큰 집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것은 요한 마가의 집입니다. 아마도, 14장 30절에서 물항아리를 나르는 사람으로 자신을 자신의 복음서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주의 만찬, 유월절 식사,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입니다. 그는 빵을 떼고, 잔을 마시고, 주의 만찬, 성찬례를 거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마가의 집에서 거행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우리에게 개인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측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있고 여러분이 평생 기억할 만한 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젊은이였고 여기서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제공합니다. 제가 이것을 맥락에 맞춰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 위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군중이 모이는 동안, 이 깡패들이
 가서 예수를 체포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칠 것이고, 예수는
 남겨질 것입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를 붙잡아 체포하고 재판에 넘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51-52 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한 청년이 세마포 옷만
 걸치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들이 그를 잡자 그는 옷을 버려둔 채
 벌거벗고 도망쳤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따라가는 모습이 떠오르죠.
 당시 어린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요한 마가입니다. 그런데, 군중이 먼저
 요한 마가의 집에 와서 예수를 붙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요한
 마가의 집에서 그는 “와,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낫겠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그는 그들을 따라가 예수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어린아이. 그들은
 그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예루살렘 거리를 질주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옷을 벗은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평생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만 그것을
 언급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요한 마가이고 이것이 그의 표적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복음에

자신을 넣은 방식입니다. 말이 됩니다. 사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추측일 뿐입니다.

W. Mark, Peter의 비서이자 친구 [80:57-89:49]

H: W 결합; 80:57-89:49; 마크, 피터의 비서이자 아들

마가복음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마가가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떤 책이
성경에 들어가고 성경에서 나갔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어떤 책이
정경인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마태는 사도였고, 요한은 사도였고, 바울은 사도였고(그는
서신을 쓸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였고, 유다는 예수의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약간 의문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들과 아주 일찍 연관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부 중 한 명인 파피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세기
초에 "베드로의 통역자 또는 번역자가 된 마가는 주님께서서
말씀하셨거나 행하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지만 순서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주님 의 말씀인 로기아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베드로를 따랐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피아스의 이 진술은 에우세 비우스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우세비우스는 역사가였던 초기 교부였습니다.

에우세비우스는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서기 325년경에 교회의 초기 역사가였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에우세비우스는 베드로가 요한 마가의 멘토였다는 파피아스의 말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확증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5:13을 보시면, 제가 여기에 적어 두었으니, 신문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그 여인이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아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 마가도 인사합니다.” 그가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의 문자적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네로의 박해 하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네로는 그곳의 황제였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네로는 자신이 개조하고 싶었던 로마의 일부를 불태웠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로마의 일부를 불태우면서 누군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일종의—경영진을 만날 때마다 마치 그들의 잘못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글썄요,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공을 차지하지만, 누구의 잘못일까요? 손가락은 항상 그렇게 움직이며,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전임 행정부, 상원의원, 의원.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공을 차지합니다. 무슨 일이든 잘되면 그들은 공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빌론에 있는 자, 너희와 함께 책임을 받은 자가 인사를 전하고, 나의 아들 마가도 인사를 전한다.” 베드로는 로마에 있고, 그는 나의 아들 마가라고 말한다. 마가는 그의 아들, 그의 영적 아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빌론이라는 암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전한다. 바빌론은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는 로마에 있다.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로는 도시를 불태우고 나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을 특정 유형의 가연성 물질에 담그고 기둥에 올려놓고, 기독교인을 산 채로 불태운다. 그는 네로가 기독교인을 산 채로 불태웠기 때문에, 불태운 기독교인이 로마를 불태운다고 말했다. 정말 사악했다.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나는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었을 때 그들은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이 베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바빌론에 있고 내 아들 마가가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마가는 함께 로마에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로마를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빌론이라는 단어를 다시 볼 때 중요한데요. 바빌론은 로마의 코드워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와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멋진 일이죠. 베드로와 마가는 친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요한 마가의 사촌 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10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문안하노라”

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누구일까요?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나갔습니다. Bar-na-bas: *bar*는 "의 아들"을 의미하고, *nabas*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초기 교회에서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출신의 부유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고 싶어할까요? 그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요한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25에서 "요한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의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안티오크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이며, 사도 바울의 세 차례의 선교 여행(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은 모두 시리아의 안티오크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갔고 요한 마가는 그들과 함께 갔고, "바나바와 사울이 사명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장에 그들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나라는 사명을 받았고, 13장 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살라미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은 항상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도우미로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는 분명히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터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터키로 건너가고 싶어했습니다. 터키는 바울이
 태어난 곳인 타르수스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요한 마가가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요한 마가가 그만둡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토스에서 페르가로 항해한 다음 팜필리아로 갔는데,
 요한은 그곳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에서
 그 시점에 요한 마가에 대해 실제로 부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과 요한 마가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바나바와의 관계를 끊었고, 그들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안티오크에 있을 때 바나바는 “야, 다시 요한 마가를 데리고
 나가자. 바울, 바나바, 요한 마가를 알잖아. 우리 셋이 전에 했던
 것처럼 가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 시체 때문에. 그 애는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
 마가에게 정말 화가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데려가고,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돌아간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런 분열이 있는 것이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함께 했고, 그 모든 시간을 여행하며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채로 버려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구타당했습니까? 바나바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거의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아이디어와 같습니다. 이들은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요한 마가 사이의 갈등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로 요한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고 바울은 그때 요한 마가를 거부합니다.

X. 바울은 왜 마가를 배척했는가?[89:49-92:34]

I: X- Z 결합; 89:49-1:01:29; 마크와 폴 갈등 및

화해

이제, 몇 가지 제안이 있을까요? 존 마크가 왜 그만두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완전히 추측일 뿐이지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 마크가 터키에 도착했을 때, 이것은 존 마크가 예루살렘 출신이며, 삶에 대한 매우 지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렇게 집을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터키에 도착했을 때 고향이 아팠고, “와, 너무 지나치네”라고 말하며 고향이 아팠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키프로스에서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이고 키프로스의 이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터키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인수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촌 형과 같은 인물인 바나바가 바울의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리더였던 권력이 바울에게로 옮겨가자, 그것은 존 마크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내 사촌이 여기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러자 바울이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요한 마가 사이의 긴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요한 마가가 있던 곳을 넘어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는 “나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멈출 거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가능합니다.

향수병, 바울 또는 이방인.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과 요한 마가,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수 있을까요 ? 여기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쓸 예정입니다. 요한 마가를 둘러싼 그들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우정이 깨졌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확언은 베드로전서 5:13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나와 내 아들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마가는 잘 맞는 듯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와 마가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가가 그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를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 풀어 주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만찬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 마크와 그 집안에 꽤 오랫동안 있었을 가족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내 아들”이라고 확인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Y. 바울과 마가의 화해 [92:34-94:52]

이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까요? 사람들은 삶에서 일찍 한 일을 후회할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 일부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썄요, 여기 바울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울은 글을 쓸 것이고, 이것은 디모데후서 4:11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며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요한 마가에 대한 큰 불화 후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끝맺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여러 번 구타당했기 때문에 그를 치료해 줄 의사가 있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마가를 데려와서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애의 마지막에 자신과 마가 사이에 엄청난 균열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에, 죽음에 직면한 그는 “디모데, 마가를 데려와서 데려오너라. 그는 나와 내 사역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서기 68년경에 죽게 되는 화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이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데려와서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Z. 화해의 개인적 사례 [94:52-101:29]

저는 여기서 마크와의 첫 번째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옛날 옛적에 저는 중서부의 매우 보수적인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좋은 곳, 좋은 사람들. 저는 아마도 10년 동안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일했습니다. 인디애나 주 미시간 시티에 있었습니다. 최고 보안 교도소였고, 1800년대에 지어졌으며, 철조망과 경비원이 있는 벽은 높이가 40피트, 두께는 약 10피트였습니다. 거대한 교도소, 최고 보안 교도소였습니다. 모든 큰 놈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살인,

강간, 모든 큰 범죄가 있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놈들이요.

거기에 있던 제 친구 중 한 명은 종신형을 11번 선고받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사형수였습니다. 여기가 큰 놈들이 있는 곳이었습시다. 저는 그곳까지 왕복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이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다음 저녁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도소까지 갔습니다. 이 교도소까지 차로 한 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일곱 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마지막 문이 닫히면 감옥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가르치러 갔고, 저는 감옥에서 성경 공부와 컴퓨터,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 친구와 저는 올라갈 때 한 시간 반, 돌아올 때 한 시간 반을 여행했어요. 매주 누군가와 차를 타고 여행하고, 몇 년 동안 매주 여행을 다녔어요. 하루 에 두 번, 3시간씩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차에 타게 돼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양한 것들을 듣는 것 외에도 매우 가까워지죠. 제가 찰리라고 이름을 지을 그 친구는 제게 매우 매우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함께 꿈을 꾸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가족은 서로 어울렸어요. 그의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저에게 연락해서 삼촌의 옷을 입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그 옷을 Goodwill에

가져가는 대신, 그들은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가족의 일원과 같았어요.

얼마 후, 그는 캠퍼스의 몇몇 여학생들과 약간의 희롱을 시작했고, 저는 그들이 그를 징계하기 위해 모색하는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대학 여학생들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친구가 되어야 했지만, 그 결과 저는 징계 조치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했고,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갑자기 이 일로 그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대학에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월마트에 갔을 때, 월마트를 걷다가 그의 아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6인치 거리로 걸어왔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를 정말 사랑했고, 그는 정말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큰 일이었습니다.

약 15년 후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윈햄에 있는 고든 칼리지에서 가르치기 위해 매사추세츠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프로스트 홀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고, 그는 “안녕, 테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만에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누구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마치 형이 전화를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안녕, 베넷 센터에 대해 뭐 알아?”라고 물었습니다. 베넷 센터는 고든 칼리지의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는 “응”이라고 말했고, 저는 “켄, 너야?”라고 물었습니다. “응.” 그는 “나는 베넷 센터라는 곳에 있는데, 같이 모일 수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을 재빨리 빠져나와 베넷 센터로 달려갔고, 거기에 제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와서, 그가 내게 한 첫 말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였습니다. 그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형제 자매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긴장이 있는 가족.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친구와 함께 돌아왔고 그는 용서를 구했고, 저는 그를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형제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그날 저는 베넷 센터에서 나갔는데 주차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의 아내가 차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뛰어올라서 아마 30분에서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화해

그래서 여기서 존 마크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폴의 삶의 마지막에, 당신은 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아마도 그의 젊은 시절에 정말 나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폴과의 관계를 망쳤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폴이 죽음에 직면해 있는데, 폴은 누구를 요청합니까? 그는 죽음에 직면해 있는데, 그는 누구를 요청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존 마크를 데려와, 그를 여기 데려와, 그는 내 사역에 유익할 것이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그 둘은, 그들이 다시 사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크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수년간의 긴장 기간 후에 화해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한 마가와 그의 삶의 역사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는 마가 복음을 쓸 것이고, 파피아스가 말했듯이, 그는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통역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다소 저속합니다) 하지만 요한 마가는 베드로의 복음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 마가에게 말할 많은 것들을 요한 마가는 그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마가로부터 베드로의 풍미를 얻습니다.

글쎄요, 그만 하죠. 잠깐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Nathan Wolters가 필사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 편집, Rough 편집